

원효의 미륵정토사상에 담긴 화쟁의 정신

- 『미륵상생경종요』를 중심으로 -

김영일*

• 목 차 •

- I . 머리말
- II . ‘미륵계 경전’에서의 화쟁문제
 - 1. ‘대승경 여부’에 관한 논쟁
 - 2. ‘과보신 여부’에 관한 논쟁
- III . ‘미륵의 탄생’에서의 화쟁문제
 - 1. ‘탄생의 장소’에 관한 논쟁
 - 2. ‘탄생의 시간’에 관한 논쟁
- IV . ‘미륵의 수행’에서의 화쟁문제
 - 1. ‘발심한 시점’에 관한 논쟁
 - 2. ‘성불한 시점’에 관한 논쟁
- V . ‘미륵의 교화’에서의 화쟁문제
 - 1. ‘부처의 존재’에 관한 논쟁
 - 2. ‘법회의 횡수’에 관한 논쟁
- VI . 맺음말

* 동국대학교 강사.

한글요약

미륵사상은 멀리 인도에서 성립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다. 원효는 이 사상이 신라의 소박한 민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알고, 『미륵상생경중요』를 지어서 미륵사상과 신앙의 참뜻을 널리 알렸다. 그는 이 책에서 미륵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화쟁’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아갔는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륵계 경전’에 관해서는 『미륵상생경』이 대승경인지 여부와 미륵의 모습이 과보신인지 여부를 논하고 있다. 『미륵상생경』은 대승경이라고 단정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그의 화쟁론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진리의 선언에 그 참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미륵의 모습이 과보신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설 사이에 공방하는 모습이 들어감으로써 논의가 보다 실감 있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미륵의 탄생’에 관해서는, 미륵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과 대하여 논하고 있다. 장소에 관한 논쟁에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2단계에 걸쳐서 회통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제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는 확신에 찬 견해를 바탕으로 회통을 시도 하는데, 시종일관 논쟁당사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미륵의 수행’에 관해서는, 미륵이 발심한 때와 성불한 때를 석가와 관련하여 논한다. 발심에 관한 논의에서는 ‘확정된 마음’과 ‘확정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2개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통하였는데, 이는 다른 저서에 종종 등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성불에 관한 논의에서는 ‘진실로 많은 행위로 ... 드리워 보인다.’라는 매우 수준 높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들이 경전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넷째, ‘미륵의 교화’와 관해서는, 부처의 존재와 미륵불이 개최한 법회의 횟수에 대해서 논한다. 부처에 관한 논의에서는 ‘경론의 내용은 근기를 따라 보고 듣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여, 자신의 경론관을 알려준다. 또한, 법회에 관한 논의에서는 양설은 일정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맹인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각설이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기에 회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주제어

원효, 화쟁, 화쟁론, 미륵, 미륵사상, 미륵경전, 미륵상생경, 미륵상생경
중요, 미륵보살, 미륵불.

I. 머리말

한국불교를 대표할만한 사상가 중의 한 분으로 ‘원효’를 거론하는 분이 많다. 오늘날까지 방대하게 남아있는 활달한 문장을 보거나 음미할수록 심오한 사상을 들으면서,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여러 문화와 문명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분의 핵심사상인 화쟁론은 그 빛을 더욱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和靜’이란, 언 듯 보면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깨달은 눈으로 제대로 보면 여러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여 혼란되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를 깨달은 성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정돈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까닭에, 그 점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원효의 화쟁론’이 아닌가 한다.

원효의 화쟁론은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십문화쟁론』에 가장 잘 담겨있다. 비록 완전한 형태로 남겨있지는 않지만, 「공유이집화쟁문」, 「불성유무화쟁문」의 몇몇 글귀만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의 이러한 의도를 알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화쟁의 정신은 그의 다른 저서에서도 생생하게 담겨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원효가 베풀어 놓은 ‘미륵정토사상’에서 그 정신의 일단을 찾아보고자 한다.¹⁾

경전에 따르면, 미륵은 도솔천에서 태어나 수행을 하다가, 56억 8천

1) 정토사상이란, 넓게 보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하는 ‘미타정토사상’과 미륵불을 중심으로 하는 ‘미륵정토사상’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원효의 미타정토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원고로 살펴본 적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원효의 미륵정토사상’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영일, 「원효의 정토사상에 담긴 화쟁의 정신」, 『정토학연구』 20집, 한국정토학회, 2013, 57-90, 참고>.

만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이후 출가하여 용화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한 후에,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며 그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륵사상의 씨앗은 이미 초기불교경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²⁾ 인도의 미륵신앙은 대승불교도들에 의해서 발생하여, 기원후 2-3세기경에는 상당히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³⁾

중국으로 들어온 미륵신앙은 道安(312-385)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399년부터 인도와 서역지방을 여행한 후에 돌아온 法顯은 5세기 초기에 중국인들의 신앙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⁴⁾ 특히, 北魏는 미륵상생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唐에 이르러서는 아미타 중심의 정토신앙이 주류가 되고 그 대신 미륵 중심의 정토신앙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⁵⁾

미륵사상은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고구려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자료가 발견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⁶⁾ 백제의 미륵사상은 5세기경에 들어와서 6-7세기에 성행하였는데, 계율과 미륵신앙이 결합되어 발전한 특징이 있다.⁷⁾ 또한, 신라의 미륵신앙은 인격적인 구원의 이상으로 삼았다는 점과,⁸⁾ 인도나 중국보다는 실질적이

-
- 2) “堅固王이란 왕이 전륜성왕이 되어 천하를 正法으로 다스렸다. … 그때에 미륵여래라는 부처가 세상에 나오고 十號가 구족하여 지금의 석가모니와 같았다.” <「진륜성왕수행경」, 『장아함경』(大正藏1 39상-42중)>
- 3) 간다라지방에서 미륵상이 보이고, 2세기 후기의 미륵상이 시구리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 <高田修, 『佛像の起源』 pp.264-328.>
- 4) 塚本善隆, 『支那佛教史研究』 北魏編 참고, <김삼용,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한국사상사학』6 (한국사상사학회, 1994) p.14 재인용.>
- 5) 북위의 낙양천도 이후부터 수대와 당대까지 용문산 석굴의 석상이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6세기경에는 석가와 미륵이 다수를 점하였으나 7세기에는 아미타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다.
- 6) 고구려의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辛卯銘金銅佛像’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아미타신앙과 혼동된 신앙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 7) 무왕 때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는데, 거기에는 용화보리수 아래에서 3회의 법회를 여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미륵국토사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삼국유사』 「무왕」조 참고>

고 구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⁹⁾

본고는 이러한 경로로 원효에게 전해진 미륵사상에서 그의 화쟁정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그의 『미륵상생경중요』를 주로 검토할 것인데,¹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주석서도 참고하였다. 한국의 것으로는 혜균의 『미륵경유의』¹¹⁾와 경홍의 『삼미륵경요간』이 있고,¹²⁾ 중국의 것으로는 규기의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¹³⁾

-
- 8) 『삼국유사』 권제3 塔像제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조에 의하면, 신라 최초의 사찰인 興輪寺에 미륵존상을 봉안하였는데, 흥륜사의 스님인 진자법사가 미륵상 앞에 나아가 화랑으로 출현하기를 기원하여 화랑으로 세상에 나아갔다고 한다.
- 9) 김삼용,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한국사상사학』6 (한국사상사학회, 1994) p.13.
- 10) 원효는 『미륵상생경소』 1권과 『미륵상생경중요』 1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미륵상생경중요』만이 현존한다.
- 11) 『미륵경유의』는 그동안 길장의 저서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혜균의 저서로 밝혀졌다. 즉, 『미륵경유의』는 일본의 『東域傳燈目錄』에 ‘均僧正撰 上下兩經遊意 一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길장은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을 모두 소승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책에서는 미륵상생경은 대승으로 보고 미륵하생경을 소승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륵경유의』의 저자를 혜균으로 보고 있다. <伊藤隆壽, 『彌勒經遊意』의 問題點,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4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1973)>
- 12) 위에 지적한 현존본 이외에, 한국인이 썼던 미륵경전 주석서는 다음과 같다. ① 원측, 『미륵상생경약찬』 2권, ② 경홍, 『미륵상생경소』 2권, ③ 경홍, 『미륵하생경소』 1권, ④ 경홍, 『미륵성불경소』 1권, ⑤ 경홍, 『미륵경축의술문』 4권, ⑥ 태현, 『미륵상생경좌적기』1권, ⑦ 태현, 『미륵하생경좌적기』1권, ⑧ 태현, 『미륵성불경좌적기』1권, ⑨ 의적, 『미륵상생경요간』1권.
- 13) 본고의 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업적은 참고문헌에 모두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중요한 논문과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① 안계현은 원효의 『미륵상생경중요』의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서, 미륵경의 다른 주석서인 혜균의 『미륵경유의』, 규기의 『미륵상생경찬』, 경홍의 『삼미륵경소』 등을 비교하여 논하고 있다. <安啓賢, 「元曉의 彌勒淨土 往生思想」, 『역사학보』17 (역사학회, 1962)> ② 김삼용은 미륵신앙이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다루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원효의 『미륵상생경중요』는 총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제1장 大意는 서론으로서 미륵보살의 활동과 경의 이름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고, 제2장 宗旨는 본서의 중요한 뜻을 觀과 行하는 원인과 결과로 밝히고 있다. 그런 뒤에, 제3·4장은 ‘미륵계 경전’에 대해서, 제5·6장은 ‘미륵의 탄생’에 대해서, 제7·8장은 ‘미륵의 교화’에 대해서, 제9·10장은 ‘미륵의 수행’에 대해서 각각 논의하고 있다.¹⁵⁾

II. ‘미륵계 경전’에서의 화쟁문제

원효는 제3장 二藏是非와 제4장 三經同異에서, ‘미륵계 경전’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다. 즉, 제3장에서는 『미륵상생경』이 소승의 성문장과 대승의 보살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의 3경전을 서로 견주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고 있다. 이중에서, 원효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초점으로 하여 검토해 본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삼용,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③ 최유진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미륵상생경중요』를 다루고 있고, 원효의 화쟁론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최유진, 「원효의 미륵신앙에 대하여」, 『종교연구』20 (한국종교학회, 2000. 8)>

- 14) 이 책은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상생경)』, 『佛說彌勒下生經(하생경)』, 『佛說彌勒大成佛經(성불경)』 중의 하나인 『상생경』을 해설한 책이지만, 『상생경』 자체가 다른 책의 내용을 대체로 포함하기 때문에, 『미륵상생경중요』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원효의 미륵사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15) 본고는 원효의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한다. 다만, ‘미륵의 수행(제9장·제10장)’ 이후에 ‘미륵의 교화(제7장·제8장)’를 배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만을 바꾸었다.

1. ‘대승경 여부’에 관한 논쟁

원효는 제3장에서, “『미륵상생경』은 소승경인가, 대승경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1설은 『미륵상생경』은 ‘소승경으로서 성문장에 해당한다’고 하고,¹⁶⁾ 제2설은 『미륵상생경』이 ‘대승경으로서 보살장에 해당한다’고 한다.¹⁷⁾ 이러한 양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논평하여 말한다. 이 경의 가르침은 대승과 소승의 근기에 고루 미친다. 말한 것처럼, “위 없는 보리심을 공경한다,” “미륵보살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 내지 널리 설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적은 것은 큰 것을 포용하지 못하지만 큰 것은 적은 것을 능히 용납할 수 있으므로, 宗旨를 따라서 보살장에 포함된다. 이러한 까닭에, 뒷분의 말씀이 옳다.¹⁸⁾

이 글에서, 원효는 “대승경설이 옳다”고 판단을 내린다. 왜냐하면, 이 경의 가르침은 대승과 소승의 근기에 공통으로 미치고 있는데, 적은 것은 큰 것을 포용하지 못하지만 큰 것은 적은 것을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뒤에, 제1설에서 근거로 삼는 두 가지 경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미를 해설해 줌으로써, 제1설에 어찌하여 옳지 않는지를 해명하고 있다.¹⁹⁾

16) 그 이유에 대해서, 阿逸多是 범부의 몸을 갖추고 아직 모든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며, 도술천에 태어나는 것은 소승교에서 말하는 十善의 과보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효, 『미륵상생경중요』 (韓佛全1 548중)>

17)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이 경에는 聲聞衆과 菩薩衆이 모두 있고, 둘째, “十方의 부처님에게 예경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셋째, “不退轉의 法輪行을 설한다.”고 말하였고, 넷째,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다른 세계에서 온 十萬의 보살이 首楞嚴三昧를 얻었고 八萬億의 諸天이 보리심을 말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의 책, p.548중>

18) 위의 책, p.548중-하, “評曰 此教通被大小根性 如言愛敬無上菩提心者 欲爲彌勒作弟子者 乃至廣說故 但小不容大 大能含小故 隨所宗菩薩藏攝 所以後師所說是也.”

한편, 혜균은 『상생경』이 대승경이라고 하고 『하생경』과 『성불경』은 소승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생경』 부분에 대해서는 원효와 같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또한, 규기는 『상생경』을 대승과 소승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원효의 의견과는 다르다.²¹⁾ 또한, 경홍은 미륵삼부경이 대승경과 소승경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논하기는 하였으나, 다만 제설을 나열하였을 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²²⁾

생각건대, 원효는 제설을 회통할 때에 ‘모두 옳다’는 판단을 주로 내리고 있다.²³⁾ 그런데, 이번 논의의 경우에는 ‘대승경설이 옳다’고 하여 어느 한 설은 옳고 다른 한 설은 그르다고 판단하고 있다.²⁴⁾ 여기에서, 원효의 참 뜻은 제설의 입장을 단순히 화해시키려는 데 초점

19) “미륵보살이 범부의 몸을 갖추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같은 경에 “미륵보살의 몸에 나타난 圓光 가운데 수릉엄삼매와 반야바라밀 글자의 뜻이 뚜렷하다”는 경문도 있는데, 이것은 보살의 지위가 十地에 오른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승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명한다. 또한, “도솔천의 과보는 十善의 과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살 十善의 果報는 시방에 두루하여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단지 저 도솔천에 국한하여 보살 십선의 과보를 밝히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문에서는 ‘보살의 십선 과보’를 말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위의 책, p.548하>

20) 혜균, 『미륵경유의』(大正藏38, 263하-264상)

21) 자세히 말하면 규기는 “阿逸多是 범부의 몸을 갖추고 아직 모든 번뇌를 끊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소승장에 포함되고, “미륵보살의 몸에 나타난 圓光 가운데 수릉엄삼매와 반야바라밀 글자의 뜻이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대승장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규기,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 (大正藏38 278상)>

22) 경홍, 『삼미륵경요간』(大正藏38 304하-305상)

23) 연구에 따르면, 원효의 모든 저서에 나오는 총65개의 사례 중에서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은 총47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8) p.130.>

24) ‘A설은 옳고, B설은 그르다’라고 하는 원효의 판단형식은 비단 이번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륵상생경중요』의 제9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회통이 등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밝힌 특징적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올바른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선언하고 인식시키려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효가 논의한 내용과 결론이 혜균의 설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원효가 혜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론을 분명히 제시한 점, 양론의 문제점을 제시한 점, ‘적은 것은 큰 것을 포용하지 못하지만, 큰 것은 적은 것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점, 제1설의 문제점을 해명한 점 등은 원효만의 고유한 내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2. ‘과보신 여부’에 관한 논쟁

위의 논의에 이어서 원효는, “미륵의 훌륭한 모습이란 과보신인가, 변화신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1설은 미륵의 正報와 依報가 장엄하게 된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닦아서 비로소 얻게 된 ‘진실한 과보의 몸이다’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제2설에서는, 미륵이 장엄한 것은, 다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임시로 변화된 모습이다’이라고 한다.²⁵⁾ 이러한 주장에 이어서 논란이 전개된다.

만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보통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과보요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뒤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十方에 두루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변화된 모습이요 과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살의 ‘報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²⁶⁾

이 글에서 먼저 제2설이 논박하기를, 만일 과보신이라면 보살은 중

25) 원효, 『미륵상생경중요』(韓佛全1, 548하)

26) 위의 책, p.548하, “若如後者, 非凡所見, 是報非應. 若如後者, 不遍十方, 是應非報. 云何得言菩薩報應?”

생의 근기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사람은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 제1설이 공박하기를, 만일 변화신이라면, 보살은 수행의 과보로 받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방에 두루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²⁷⁾ 이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해석하여 말한다. 저 하나하나의 모습은 모두 分齊가 있으나, 그 분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각각 시방에 두루하다. 시방에 두루하다는 극단에 치우치면 보통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되고, 분제가 있다는 극단에 치우치면 보통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분제가 곧 두루함이요 두루함이 곧 분제이니’,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기에, (보살의 장엄한 모습은) 그 공덕의 진실한 과보가 아님이 없고, 분제를 따라서 보이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이 아님이 없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報應’이라고 말한 것이다.²⁸⁾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저 하나하나의 모습은 모두 分際가 있으나, 그 분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각각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시방에 두루 있으면 보통사람은 볼 수 없고, 분제가 있어야 보통사람은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양설이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모두 치우친 견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번 논의에서 원효는 일반적인 논쟁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효의 논의는, 처음에는 여러 주장들이 제시되고, 끝으로 원효 나름대로의 회통이 제

27) 위의 책, p.548하.

28) 위의 책, p.548하-549상, “解云, 彼一一相, 皆有分齊, 不壞分齊, 各遍十方. 遍十方邊, 非凡所見, 其分齊邊, 是凡所觀. 然, 分齊卽遍, 遍卽分齊, 無障無礙, 無二無別. 如是功德, 無非實報, 隨分所見, 無非應化. 由是道理, 故說報應.”

시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중간부분에 양설이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공박과 논박을 통하여 이러한 논의가 더욱 현실감 있는 논쟁의 느낌을 갖게 하는 듯하다.

Ⅲ. ‘미륵의 탄생’에서의 화쟁문제

원효는 「제5장 生身處所 과 「제6장 出世時節 에서 미륵의 탄생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 즉, 제5장에서는 미륵이 태어난 ‘장소’와 관련된 여러 이설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제6장에서는 미륵이 태어난 ‘시간’과 관련하여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 ‘탄생의 장소’에 관한 논쟁

원효는 제5장에서, “미륵이 태어난 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1설은 『화엄경』에 따라서, 염부제의 남쪽에 있는 摩離國 拘提聚落에 사는 ‘바라문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고, 제2설은 『賢愚經』에 따라서, 波羅奈國의 ‘어떤 정승의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며, 제3설은 『미륵상생경』에 따라서, ‘波羅奈國 劫波梨村에서 태어난다.’고 한다.²⁹⁾ 이러한 3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먼저 제2설과 제3설에 대해서 회통한다.

해석하여 말한다. 뒤의 두 經文은 글은 다르되 뜻은 같다. 왜 그러냐 하면, 『현우경』의 뜻은 ‘아버지를 들어서 출생한 것을 나타낸 것’이기

29) 위의 책, p.549중-하.

때문에, ‘정승이 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고 한 것이어서, 이것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생경』의 글에는 ‘태어난 곳을 적실하게 밝히었으니’, 그 나라의 법은 부인이 회임하면 본가로 가서 출산하도록 되어있는데, 본가는 겁파리촌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 두 경문이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⁰⁾

이 글에서, 원효는 제2설과 제3설에 대해서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우경』에서는 ‘미륵보살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하는 점을 밝히려는데 주안점이 있었기에 ‘어떤 정승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였고, 『미륵상생경』에서는 ‘미륵보살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점을 밝히려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바라나국 겁파리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뒤, 원효는 다시 제1설과의 회통을 시도한다.

『화엄경』은 별도로 다른 곳을 나타내었으나, ‘大聖의 分身은 기틀을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곳곳에서 기이하게 나기도 하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런 도리로 말미암아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³¹⁾

이 글에서, 원효는 제2설과 제3설을 포함하여 제1설을 평하기를, ‘제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륵과 같은 대성인의 분신들은 이러 저러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몸을 나타나는 곳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수준 높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위의 3가지 주장들이 실제로는 모두 옳아서 서로 모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홍은 이 논의와 관련하여 원효의 설과 거의 같은 취지의

30) 위의 책, “解云 後二經文 文異意同 所以然者 賢愚經意 寄父表生 故言輔相 生一男兒 此非的出 其生之處 上生經文 的明生處 彼土之法 婦懷妊已 還本家產 本家在於 劫波梨村 知此二經文 不相違也.”

31) 위의 책, “華嚴經意 別顯異處 大聖分身 隨機異見 處處異生 不足致怪 由是道理 不相違背也.”

언급을 하고 있다.³²⁾ 다만, “어느 곳에서는, 『화엄경』은 (미륵이) 자란 곳을 가리킨다.’고 말한다.”라고 하여 끝부분에 약간의 내용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³³⁾ 어느 학자는 바로 이 점이 원효의 설에 비해서 진실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³⁴⁾ 하지만, 필자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아니한다.

생각건대, 이번 논의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원효가 제설을 회통할 때 한꺼번에 회통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효는 주어진 논점에 대한 주장이 양설이던지 혹은 제설이던지 무관하게 회통에 임하여서는 항상 한 번의 기회에 재단하였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2단계에 걸친 회통에서 2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설을 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통의 처음단계에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에 각각 주안점을 두어서 설하였다는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양설을 회통하고 있다.³⁵⁾ 그리고 회통의 둘째단계에서 ‘대성의 분신은 기틀을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1개의 기준을 가지고 제설을 회통하고 있다.³⁶⁾

32) 경흥, 앞의 책, p.315상, “云何通耶 答賢愚上生語異意同 何以故 賢愚經寄父辨生 而不指生處 今上生經直指生處 彼國俗婦懷妊已還本家故 本則劫波利村也 華嚴經約異故 不可定判 是謂大聖隨機見不同生也.”

33) 위의 책, p.315상, “一云 華嚴經指養處也.”

34) 안계현, 원효의 미륵정도 왕생사상, 『역사학보』17 (역사학회, 1962) p.258.

35)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설을 회통하는 방식은 본고의 “IV. ‘미륵의 수행’에서의 화쟁문제 1. ‘발심한 시점’에 관한 논쟁”에 등장하는 논의와 거의 동일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36) ‘1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설을 회통하는 방식은 본고의 “III. ‘미륵의 탄생’에서의 화쟁문제 2. ‘탄생의 시간’에 관한 논쟁”에 등장하는 논의와 거의 동일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2. '탄생의 시간'에 관한 논쟁

원효는 제6장에서, 미륵이 태어난 '시간'과 관련한 5가지 논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첫째, “미륵과 전륜성왕이 출현한 때는 서로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1설은 ‘서로 다르다’고 하고, 제2설은 ‘서로 같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륵이 처음 출현한 수명 8만4천세와 전륜성왕이 처음 태어난 수명 6만세일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제1설이 옳지만, 7번째 전륜성왕이 태어난 수명 8만4천세일 때와 비교하면 제2설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⁷⁾

둘째, “미륵이 출현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제1설은 ‘수명 80,000세 일 때’라고 하고, 제2설은 ‘수명 84,000세일 때’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일 큰 수’만을 들어서 말하면 그 수가 9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80,000세’라는 설이 옳지만, ‘큰 수들’을 모두 나열하면 ‘84,000세’라는 설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⁸⁾

셋째, “전륜성왕이 출현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제1설은 ‘수명 60,000세일 때’라고 하고, 제2설은 ‘수명 80,000세일 때’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수명이 증가되어가는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제1설이 옳고, ‘수명이 감소되어 가는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제2설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⁹⁾

넷째, “미륵이 도솔천에서 지낸 天壽 4,000세는 人壽로 몇 세인가?”에 대해서, 제1설(『賢劫經』)은 ‘56억 7천7만세’라고 하고, 제2설(『雜心論』)은 ‘57억 6백만세’라고 하며, 제3설(『賢愚經』)은 ‘56억 7천만세’라

37) 원효, 『미륵상생경종요』(韓佛全1, 550상)

38) 위의 책, p.550상.

39) 위의 책, p.550상.

고 하고, 제4설(『上生經』)은 ‘56억만 세’라고 하며, 제5설(『定意經』)은 ‘5억 76만세’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생각건대, 저 하늘의 4천세는 인간의 세월에 준하면 5만 7천 6백의 만년(=576,000,000, 5억 7천 6백 만년)이 되는데, 여기서 만으로써 머리를 삼았기에 그 수가 5만 7천 6백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 만약 千의 萬을 億으로 한다면, 곧 57억 6백 만세가 되므로 『잡심론』의 글에 해당된다. 만약 萬의 萬을 億으로 삼는다면, 곧 5억 7천 6백 만세가 되므로 『정의경』의 설에 가까운데, 76만세라고 한 것은 계산의 단위가 잘못된 것뿐이니, 7천이 7십이 되고, 6백이 6으로 된 것이다. 그 밖에 3경에서 모두 5십여 억 등이라고 말한 것은 각각 천만을 억의 수로 삼았기 때문이요, 번역하는 이에 따라서 잘못 증감이 있었을 것이다.⁴⁰⁾

이 글에서, 원효는 ‘제설이 대체로 모두 옳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원래 천수 4천세를 인수로 계산하면 ‘5억 7천 6백만년’이 되는데,⁴¹⁾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단위와 번역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제1설·제3설·제4설은 이와 비슷한 수치를 적었는데 이것들은 번역을 잘못된 것이고, 제2설은 千의 萬을 億이라는 단위로 사용한 것이며, 제5설은 7천 6백만의 단위를 각각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한다.

40) 위의 책, p.550중, “案云 彼天四千歲 准人間歲數 得五萬七千六百之萬年 此是以萬爲首 而數至於五萬七千六百 此中若依千萬爲億 卽爲五十七億六百之萬歲 當於雜心之文 若依萬萬爲億之數 卽爲五億七千六百之萬歲 近於定意經說 而言七十六萬歲者 算位誤取之耳 七千爲七十 六百爲六也 其餘三經 皆云五十餘億等者 並依千萬爲億之數 而隨翻譯之家 頗有增減之云耳.”

41) 원효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도솔천의 1일이 염부제에서는 400년에 해당되므로, 1월(30일)은 12,000년이 되고, 1년(12월)은 144,000년이 된다. 따라서, 도솔천의 4,000년은 염부제에서 576,000,000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위의 책, p.550상-중>

한편, 혜균은 제설의 주장을 단지 나열하기만 하였을 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점은 원효의 태도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⁴²⁾ 또한, 규기는 제설을 나열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기는 한데, 『잡심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대신 『雙卷泥洹經』에 대해서 논한 점이 원효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³⁾

생각건대, 이번 논의에서 원효는 ‘1개의 기준’을 가지고 제설을 회통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즉, 회통에 앞서서 여러 가지 확실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5억 7천 6백만년(576,000,000년)’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정답을 산출해 내고 이것을 근거로 제설을 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효의 이러한 회통방식은 비단 이번 논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러 저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방식이다.⁴⁴⁾

다섯째, “미륵이 도솔천에서 머문 시간은?”에 대해서, 제1설은 ‘인수 100세부터 80,000세까지’라고 하고, 제2설은 ‘천수 4,000세 동안’이라고 한다.⁴⁵⁾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제설이 모두 옳다’고 한

42) 혜균, 앞의 책, p.270중.

43) 규기,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大正藏, 295상), “... 雙卷泥洹經云 一億四千歲 全不相當 ...”

44)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원효는 『열반중요』 『회통문』에서, ‘무엇이 性淨佛性인가?’에 관하여 논하는데, 총6설의 주장에 대하여, ‘자성이 청정한 진여의 불성’이라는 1개의 기준으로 제설을 회통한다. 즉, 삼승이 한가지로 돌아오기에 ‘일승’(제1설)이라고 하고, 12인연의 근본이기에 ‘인연’(제2설)이라고 하며, 일체를 벗어났기에 ‘공’(제3설)이라고 하고, 성품에 본각이 있기에 ‘지혜’(제4설)라고 하며, 중생 가운데서 진실하기에 ‘實義’(제5설)라고 하고, 자체를 스스로 비추기에 ‘我見’(제6설)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원효, 『열반중요』(韓佛全1, 544하-545상)>

45) 이 이외에 이와 관련된 2쌍의 논쟁이 추가적으로 있다. 첫째, 제1설은 ‘미륵은 약 반겁 동안 머물고 석가는 약 1겁 동안 머문다.’고 하고, 제2설은 ‘두 분이 다 하늘의 수명으로 4,000세 동안 머문다.’고 한다. 둘째, 제1설은 ‘미륵은 적은 생사를 지나셨고 석가는 많은 생사를 지나셨다’고 하고, 제2설은 ‘두 분이 다 一生補處로 하늘의 수명으로 4,000세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 제시한 논점과 같은 뿌리를 가지기 때문에 원효는 한꺼번에 회통하고 있다. <원효, 『미륵상생경중요』(韓佛

다. 왜냐하면, 미륵이 도솔천에 한번 머문 시간과 도솔천에서의 전체 일생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⁴⁶⁾ 제2설은 미륵이 도솔천에서 한번 머물렀던 기간이고, 제1설은 도솔천에서의 전체기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⁷⁾

이상에서 미륵의 탄생 시간과 관련한 논의를 보았는데, 그 이면에 깊게 자리 잡은 무지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성왕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고, 경전의 저자들이 염두에 둔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저자들이 사용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저자가 사용한 단위가 우리와는 다를 수 있으며, 저자가 전제로 생각한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IV. ‘미륵의 수행’에서의 화쟁문제

원효는 「제9장 發心久近 과 「제10장 證果前後」에서, 미륵보살이 발심한 뒤에 마침내 성불하여 미륵불이 되는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즉, 제9장에서는 미륵이 ‘발심한 시점’을 석가보살과 비교하여 논하고 있고, 제10장에서는 미륵이 ‘성불한 시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全1 550중-하)>

46) 진제삼장이 논증한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는, 도솔천에서의 일생과 도솔천에 머문 전체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석가와 미륵이 도솔천의 4,000년을 一期로 머문 것은 같지만, 석가보살은 그런 식으로 거듭하여 약 1겁 동안 머물러서 一生補處가 되었고, 미륵보살은 그런 식으로 거듭하여 약 반겁 동안 머물러서 일생보처보살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책, p.550하-551상>

47) 위의 책, p.551상.

1. '발심한 시점'에 관한 논쟁

미륵이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발심한 시점'과 관련하여 3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 첫째, "미륵이 발심한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논하는데, 제1설은 '석가보다 40겁 먼저'라고 하고, 제2설은 '석가와 동시'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석가와 미륵은 모두 전생이 많았기 때문에' 제1설도 옳고 제2설도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⁸⁾

둘째, 경전에 따르면 미륵보다 석가는 9겁을 앞서서 성불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겁은 小劫인가? 大劫인가?"에 대해서 논한다.⁴⁹⁾ 이 점에 관해서, 제1설은 '대겁'이라고 하고, 제2설은 '소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이어서 논란이 등장한다.⁵⁰⁾ 이러한 양설의 논란에 대해서, 원효는 '제1대겁설이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相好의業을 닦는 데는 100대겁을 지나야 하는 것인데, 석가는 91대겁에 이미 수행을 완성하여 부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¹⁾

셋째, 만약 미륵보다 석가는 9겁을 앞서서 성불하였다고 한다면, "미륵은 석가보다 9겁 먼저 발심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한다. 이 점에 관해서, 제1설은 '미륵은 석가보다 9겁 먼저 발심하였다'고 하고, 제2설은 '미륵은 석가와 동시에 발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양설의

48) 위의 책, p.552상-중.

49) 이 논점은 엄격히 말하면 '성불'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음 항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논점과 서로 연관이 되기에 '편의상' 여기에서 논한다. 이러한 사정은 원효도 마찬가지여서, 『미륵상생경중요』에서는 이것을 『미륵상생경중요』의 제10장에서 논하지 않고 제9장에서 논하고 있다.

50) 제2설에서 논박하기를, "만약 대겁이라면, 석가와 미륵은 같은 겁에서 성불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석가가 9겁을 앞선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 또한, 제1설에서 공박하기를, "만약 소겁이라면, 석가는 미륵보다 1겁을 앞서서 탄생하는데, 어찌하여 9겁을 앞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 <원효, 『미륵상생경중요』(韓佛全1, 552중)>

51) 위의 책, p.552중.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이 두 보살이 동시에 발심했다고 한 것은,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마음’이다. 만약 ‘확정된 마음’으로 발심한 시기를 논한다면, 미륵보살이 발심한 9겁 뒤에 석가보살이 확정적인 마음으로 발심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9겁 뒤에 성도하여야 하지만, 지금 9겁을 초월하여 동일한 겁에서 성도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 최초의 발심을 하나로 묶어서 논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발심했다고 말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⁵²⁾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힘에 있어서, ‘확정된 마음’과 ‘확정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하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확정된 마음’이라는 기준으로 발심시기를 논하면,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지금 9겁을 초월하여 동일한 겁(대겁)에서 성도하셨으므로, 마땅히 ‘미륵보살이 발심하고 나서 9겁 뒤에 석가보살이 발심을 하였다’고 말한 제1설이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확정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기준으로 발심시기를 논하면,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최초로 발심한 시기를 하나로 묶어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은 동시에 발심하였다’고 말한 제2설이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홍은 원효와 거의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확정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발심한 것이라고 하면 미륵과 석가는 동시에 발심한 것이지만, 확정된 마음으로 발심한 것이라고 하면 미륵이 먼저 발심한 뒤에 석가가 발심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확정된 마음으로 발심한 경우에, ‘미륵의 발심은 석가의 발심보다 40겁을 앞섰다’고 추가로 지적한 점은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52) 위의 책, p.552중, “此二菩薩 同時所發 是不定心 若論決定發心之時 彌勒發心九劫已後 釋迦乃發決定之心 故應在後九劫成道 而今超九同在一劫 此論約彼最初發心 故言同時發心之耳 由是道理不相違背也.”

생각건대, 이번 논의에서는 원효가 2개의 기준으로 회통을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원효는 회통에 앞서서 ‘확정된 마음으로 발심한 것’이라는 기준과 ‘확정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발심한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양설을 회통하고 있다. 그런데, 원효의 이러한 회통방식은 이번 논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른 저서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2. ‘성불한 시점’에 관한 논쟁

미륵이 수행을 완성하여 ‘성불한 시점’과 관련하여, 원효는 제10장에서 논하고 있다. “미륵과 석가가 성불한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제1설은 『인과경』과 『범망경』에 따라서 ‘석가는 현겁에 성불하였다’고 하고,⁵⁵⁾ 제2설은 『十住斷結經』과 『법화경』에 따라서 ‘미륵과 석가는 오래 전에 수행을 완성하여 성불하였다’고 한다.⁵⁶⁾ 이러한 주장

53) 경홍, 앞의 책, p.308중, “... 若決定心自有前後 若盡道理論 應作是說 彌勒菩薩發決定心 四十餘劫 然後釋迦乃發決定心 然精進力故 超四十餘劫 同在一劫 先證菩提 ...”

54)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원효는 『법화중요』 「妙用」에서 ‘삼승이 방편인가, 이승이 방편인가?’에 관하여 논하는데, ‘별교삼승’과 ‘통교삼승’이라는 2개의 기준을 제시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양설을 회통한다. 즉, 삼승의 가르침에 2종이 있으니, 별교삼승의 입장에서 보면 삼승이 방편이 되므로 삼승설이 옳고, 통교삼승의 입장에서 보면 이승이 방편이 되므로 이승설이 옳다는 것이다. <원효, 『법화중요』(韓佛全1, 491하)>

55) 석가의 경우에, 『인과경』에서 “善慧菩薩이 공덕과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어 果位가 十地에 오르고, 一生補處가 되어 도솔천에 태어나서 이름을 聖善白이라 하였다”고 하였고, 『범망경』에서, “나 盧舍那가 ... 천명의 석가를 나투었으니, ... 한 나라에 한 분의 석가가 각각 보리수에 앉아 일시에 성도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미륵의 경우는 생략되었는데, 문맥상 ‘미륵도 현겁에 성불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원효, 『미륵상생경중요』(韓佛全1, 552중-하)>

56) 『十住斷結經』에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慈氏가 쌓은 수행은 항사수의 겁에 이르고 먼저 한 서원 때문에 等正覺을 이루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행을 닦은 것은 그 뒤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법화경』 「수량품」에서,

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석가의 성불은 오래이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며 미륵의 성불도 또한 그러하다. ‘진실로 많은 근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자취를 드리워 보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 원인에는 모두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서로 어긋나지 아니 한다.⁵⁷⁾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진실로 많은 근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자취를 드리워 보이기 때문에, 석가와 미륵이 현겁에 성불하였거나 성불할 것이라는 제1설의 주장도 옳다고 할 수 있고, 석가와 미륵이 이미 오래전에 수행을 완성하여 성불하였다는 제2설의 주장도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번 논의에서는 원효가 판단근거로 내세운, ‘진실로 많은 근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자취를 드리워 보인다’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제1설과 제2설을 주장한 사람들이나, 이 논의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보통사람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비단 이와 같은 원효의 판단근거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여러 경전에 평범한 문자로 적혀있는 말씀조차도 그 깊고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인과경』과 『법화경』 등에 뚜렷하게 적혀 있는 사실에

“내가 실제로 성불한 이후 무량·무변한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책, p.552중-하>

57) 위의 책, p.552하, “案此而言 釋迦證果 有久有近 彌勒成道 例亦應爾 良由多本 共垂一迹 所以異言 莫不皆實 由是道理 不相違也.”

대해서도, 석가와 미륵이 현겁에 성불하였는지 구겁에 성불하였는지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효는 자신의 전 저작을 통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화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는, ‘진실로 많은 근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자취를 드리워 보인다’와 같이 보통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들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된 지혜를 바탕으로 제설을 회통해 나아가는 이면에는, 보통사람들이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짐작케 한다.

V. ‘미륵의 교화’에서의 화쟁문제

원효는 제7장 二世有無 와 「제8장 三會增減」에서, 수행을 완성하여 부처가 된 미륵불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즉, 제7장에서는 중생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이 과거겁과 미래겁에도 계시는지 논하고 있고, 제8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베푸신 범회가 다만 3회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범회를 베푸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1. ‘부처의 존재’에 관한 논쟁

원효는 제7장에서, 미륵이 출세한 현재겁[賢劫]에⁵⁸⁾ 1,000분의 부처

58) 賢劫은 跋陀劫, 波陀劫이라고 음역되고, 賢時分, 善時分이라고 의역된다. 사람의 수명이 8만4천세부터 1백년을 지날 때마다 1歲씩 감소하여 10세에 이르고, 다시 1백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8만4천세에 이르기까지를 小劫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20회씩 4번하여 成·住·壞·空하는 것을

가 출세한다는 것은 여러 경전에서 설하므로 의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겁과 미래겁에도 1,000분의 부처가 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1설은 ‘1,000분의 부처가 계신다.’고 하고, 제2설에서는, ‘1,000분의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 한다’고 한다.⁵⁹⁾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해석하여 이른다. 있다는 설과 없다는 설은 모두 진실하고 허망하지 아니 하다. 왜냐하면, ‘각자 근기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이고, 있다거나 없거나 하는 것도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다고 말하거나 없다고 말하여도 서로 방해되지 아니 하다.⁶⁰⁾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은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각설이 주장할 때 근거로 내세우는 『관약왕약상경』, 『현겁경』, 『대지도론』에 적힌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보고 듣는 바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겁과 미래겁에 1,000불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도 딱히 고정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경론의 내용은 근기를 따라 보고 듣는 바가 다르다’라는 말은 원효가 경론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를 알려준다. 원효가 제설을 회통할 때 그 근거로 경론을 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때에는 그대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大劫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대겁 중에서 과거의 것을 莊嚴劫이라고 하고, 현재의 것을 賢劫이라고 하고, 미래의 것을 星宿劫이라고 한다.

59) 제1설에서 제시한 『觀藥王藥上經』에 따르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옛날에 3,000명을 교화하였는데, 그 중에 1,000명은 과거겁에 부처님이 되었고, 다음 1,000명은 현재겁에 부처님이 되고, 나머지 1,000명은 미래겁에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제2설에서 제시한 『대지도론』에 따르면, 과거에 3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賢劫經』에 따르면, 미래에 1분의 부처님이 계실 것이라고 한다. <원효, 『미륵상생경종요』(韓佛全1, 551중)>

60) 위의 책, p.551하, “解云 有無二說 皆實不虛 所以然者 隨機見聞 有無不定 故說有無 皆不相妨.”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한 후에 이것을 회통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원효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이번 논의를 접근하게 되면, ‘1,000불이 있다’는 설과 ‘1,000불이 없다’는 설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게 된다. 즉, 제1설에서 인용한 『관악왕약상경』에서는 ‘과거 겁, 현재 겁, 미래 겁’에 고루 관심을 두었기에 ‘1,000불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제2설에서 인용한 『대지도론』과 『현겁경』에서는 ‘현재 겁’에 관심을 두었기에 ‘1,000불이 없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원효는 논쟁하고 있는 제설을 회통하는데 있어서, ‘경론의 내용은 근거를 따라 보고 듣는 바가 다르다’는 상대적인 경론관을 가지고 임하였다. 이러한 경론관을 근거로 하여, 그 경론의 저자가 처해 있는 ‘입장’ 혹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진정한 경론의 의미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노력을 통하여, 해당논쟁의 관련자들을 진심으로 화해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2. ‘법회의 횟수’에 관한 논쟁

수행을 완성한 미륵은 이제 미륵불이 되어 교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교화의 가장 두드러진 예로 법회를 열게 된다. 원효는 제8장에서, “미륵이 개최한 법회는 모두 몇 회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1설에서는 ‘미륵불은 많은 법회를 연다.’고 하고, 제2설에서는 ‘미륵불은 3회의 법회만을 연다.’고 한다.⁶¹⁾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하고 있다.

61) 『菩薩處胎經』에 의하면, 석가불은 제1법회에는 12명에게 설법하였고, 제2법회에는 24명에게 설법하였으며, 제3법회에는 36명에게 설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미륵불은 제1법회에 5계를 수지한 96억명에게 설법하고, 제2법회에 3귀례를 수지한 94억명에게 설법하며, 제3법회에는 한결같이 南無佛을 일컫는 92억명에게 설법할 것이라고 한다. <위의 책, p.552상>

살펴보아 이른다. 3회라는 것은 오직 소승의 제자를 제도하여, 모두 다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승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무생인 등을 얻도록 하려는 것에 관하여 논한다면, 앞에 나오신 부처님에 의해서 교화되고 제도되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기에, 법회를 3, 4회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다.⁶²⁾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2설에서 3회의 법회만을 연다고 한 것은 소승의 제자를 제도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려고 한 것이고, 제1설에서 많은 법회를 연다고 한 것은 대승의 제자를 제도하여 무생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설은 각각 일정부분에 한하여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에 한하여서는 모두 옳다는 것이다.

한편, 혜균은 『觀佛三昧經』을 인용하여 과거7불께서 베푸는 법회수와 그 때 교화된 사람들의 수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⁶³⁾ 이 중에서 석가불께서 개최한 제1회 법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을 표시하며 이것은 아마도 녹야원에서 사성제를 설한 것으로 이해하였다.⁶⁴⁾ 그런 뒤, 미륵불께서 개최한 3회의 법회에 대해서는 『菩薩處胎經』을 인용하여 설명해 나아가고 있다.⁶⁵⁾

62) 위의 책, p.552상, “案云 三會唯度小乘弟子 以皆證得阿羅漢果故 若論大乘根性之人 令得無生忍等果者 無非先佛之所化度 故無限於三四會等.”

63) 혜균, 앞의 책, p.267하, “依觀佛三昧經明之 七佛佛三會度人不同 第一毘婆尸佛三會說法 初會說時度十六萬八千人 第二會時度十萬人 第三會時度八萬人也 第二尸棄佛 亦三會度人 初會時度十萬人 第二會時 度八萬人 第三會時度七萬人也 第三毘舍婆佛二會說法度人 初會時度七萬人 第二會時度六萬人也 第四响樓孫佛 一會說法 度四萬人 第五拘那含牟尼佛 亦一會說法 度三萬人也 第七釋迦牟尼佛 亦一會說法 度千二百五十人也.”

64) 위의 책, pp.267하-268상, “諸師云 此觀佛三昧經未知何時度千二百五十人 初度提謂婆梨人等 不見多人 爲五人說法 只見拘鄰等五人 若合諸天明之 經自云八萬諸天悟道 故難解之 又非是一會度人也 但是一坐異聞悟道 名千二百五十人也 又云優樓毘羅迦葉等三兄弟爲一千 舍利弗目連二人眷屬爲二百五十人 又云 身子弟子等六百五十人 目連六百人 合一千二百五十人也 釋迦一會說法者偏就於鹿苑中爲說四諦法輪明之也.”

또한, 규기는 원효의 설에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륵불께서 개최한 3회의 법회에 대해서 『菩薩處胎經』을 인용하여 말한다. 즉, 5계를 수지한 96억명, 3귀의를 수지한 94억명, 칭불을 수지한 92억명에게 각각 설법한 것은 원효와 같다. 다만, 제1법회에 상품인을, 제2법회에 중품인을, 제3법회에 하품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설한 점에 차이가 있다.⁶⁶⁾

생각건대, 이번 논의에서 원효는 ‘소승제자를 위해서’와 ‘대승제자를 위해서’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회통에 임하고 있다. 그 결과 양설은 비록 전체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모두 옳게 된다. 마치, 원효가 『열반중요』에서 말한 코끼리의 이야기에서 맹인들이 각기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⁶⁷⁾ 양설은 각각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모두 각각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혜균과 규기가 원효처럼 제설의 회통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원효의 글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원효는 혜균의 설 중에서 『관불삼매경』에 관한 것은 석가불과 관련되므로 생략하고, 미륵불과 관련된 『보살처태경』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기는 원효의 논의에

65) 위의 책, p.268상, “如胎經 釋迦語彌勒偈言 汝生安樂國 亦不如我累苦 汝說法甚安 我說法甚難 初說九十六 二說九十四 三說九十二 我初說十二 二說三十六 汝所三說人 是吾先所化 九十六億人 受五戒者 九十四億 受持三戒者 九十二億人 一稱南無佛。”

66) 규기, 앞의 책, p.298상, “初說九十六受我五戒者 次說九十四受持三歸者 後說九十二一稱南無佛 據實上品生修六事法 彼經唯言受我五戒 初會度者 但舉行者修六中一 威儀不缺攝 上下品生唯一事故 受持三歸第二會度者 中三品中中上品生 具三業故 一稱南無佛第三會度者 下三品中下下品攝 唯口念故 彼經且舉三中各一 麤俗所修非具顯 故不相違也.”

67) 원효는 『열반중요』에서 “불성의 본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6설의 서로 다른 주장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그는 『열반경』에 등장하는 코끼리이야기를 들어가며, “저 맹인들이 각기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실체는 얻지 못하였지만 코끼리를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제설을 회통하고 있다. <원효, 『열반중요』(韓佛全1, p.539상)>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첨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VI. 맺음말

미륵사상은 멀리 인도에서 성립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다. 원효는 이 사상이 신라의 소박한 민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음을 알고, 『미륵상생경중요』를 지어서 미륵사상과 신앙의 참뜻을 널리 알렸다. 그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와중에 ‘화쟁’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아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효는 ‘미륵계 경전’에 관해서, 『미륵상생경』이 대승경인지 여부와, 미륵의 모습이 과보신인지 여부를 논하였다. 그는 『미륵상생경』은 대승경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그의 화쟁론이 단순한 이설의 화해가 아니라 진리의 선언에 참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⁶⁸⁾ 또한, 미륵의 모습이 과보신인지를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양설이 서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 들어감으로서 논의가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미륵의 탄생’에 관해서는, 미륵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과 대하여 논하였다. 그는 태어난 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여러 가지 회통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진지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 제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간에 대한 논의

68) 원효가 말하는 ‘화쟁’의 기본취지는, 단순하게 양설의 입장을 화해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당 논점에 대한 타당한 회통근거를 제시하여, 그 참된 이치를 선언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점을 일깨워주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본다.

에서는 확신에 찬 견해를 바탕으로 회통을 시도하였는데, 시종일관 논쟁당사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미륵의 수행’에 관해서는, 미륵이 발심한 때와 성불한 때를 석가와 관련하여 논하였다. 그는 발심에 관한 논의에서 ‘확정된 마음’과 ‘확정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2개의 기준으로 회통하였는데, 이러한 회통방식은 우리가 원효의 다른 저서에도 종종 볼 수 있는 회통방식이었다. 또한, 성불에 관한 논의에서 ‘진실로 많은 행위로 ... 드리워 보인다.’라는 수준 높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경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넷째, ‘미륵의 교화’와 관해서는, 부처의 존재와 미륵불이 개최한 법회의 횟수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는 부처에 관한 논의에서 ‘경론의 내용은 근기를 따라 보고 듣는 바가 다르다’라고 말 하였는데, 이 문구에서 우리는 그가 경전과 논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법회에 관한 논의에서 ‘양설은 일정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마치 맹인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각설이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기에 회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_____, 『장아함경』, 大正藏1
 혜균, 『미륵경유의』, 大正藏38
 규기, 『관미륵상생도출천경찬』, 大正藏38
 경흥, 『삼미륵경요간』, 大正藏38
 원효, 『미륵상생경중요』, 韓佛全1
 _____, 『열반중요』, 韓佛全1
 _____, 『법화중요』, 韓佛全1
 김삼용,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서울: 동화출판사, 198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미륵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3.
 불교시대사 경전연구모임, 『미륵상생경 외』, 서울: 불교시대사, 1991.
 김삼용, 「백제미륵사상의 역사적 위치」, 『마한백제문화』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2.
 _____,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한국사상사학』6, 한국사상사학회, 1994.
 김상영, 「한국 미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 『불교와 문화』9, 대한불교진흥원, 1994.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원효의 정토사상에 담긴 화쟁의 정신」, 『정토학연구』20, 한국정토학회, 2013.
 백승중, 「한국에서의 미륵신앙의 역사적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2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석상선웅, 「6-7세기 동아세아에 있어서 미륵보살신앙의 동향」, 『마한백제문화』1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4.
 安啓賢, 「元曉의 彌勒淨土 往生思想」, 『역사학보』17, 역사학회, 1962.
 오형근, 「미륵사상연구」, 『불교학보』21,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4.
 이기영, 「元曉의 彌勒信仰」, 『元曉의 淨土思想』, 『韓國佛敎學研究叢書』62, 불함문화사, 2003.
 伊藤隆壽, 「『彌勒經遊意』の 問題點」, 『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4, 東京: 駒

澤大學佛教學部, 1973.

조수동, 「원효의 미륵사상」, 『인간과 사상』10, 영남동서철학연구소, 1998.

최연식, 「백제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사상사학』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최유진, 「원효의 미륵신앙에 대하여」, 『종교연구』20, 한국종교학회, 2000.

許庚九, 「元曉의 彌勒上生經典觀」, 『元曉의 淨土思想』, 『韓國佛教學研究叢書』62, 불함문화사, 2003.

홍윤식, 「한국사상에 있어서 미륵신앙과 그 사상적 구조」, 『한국사상사학』6, 한국사상사학회, 1994.

Abstract

**The Spirit of Harmonization in Wonhyo's thought of Pure Land
of Maitreya**
- Focused on *the Essentials of the Ascent of Maitreya Sutra* -

Kim, Yeong-il

(The Lecturer in Buddhist Department of Dongguk University)

Wonhyo knew that the thought of pure land of Meitreyā could give the message of hope to the people. So, he let the people know the real meaning of the thought through writing *the Essentials of the Ascent of Maitreya Sutra*. In the book, we can taste his spirit of harmonization, one of his distinct theory.

Firstly, on the scriptures of Meitreyā, he wants to show the truthful facts to the persons concerned by declaring that only one theory is right. And we can feel that the whole discussing process of harmonization is real by inserting the debating part into the process. Secondly, on the birth of Meitreyā, you can see that the opposing three theories are harmonized with many methods and steps. And he tries to disappear a lot of ignorance or misconception in the mind of persons concerned with the earnest efforts.

Thirdly, on the cultivation of Meitreyā, he solves the case on the basis of 2 criteria of 'the determined mind' and 'the not-determined mind'. And they can infer that the Buddhist scripture could be understood correctly on the basis of the very difficult sentence at the solving part.

Lastly, on the teaching of Meitreyā, he shows the fundamental opinion on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every scriptures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hearers. And one can know that the questions can be solved although the assertion of theory includes the only small part.

Keyword

Wonhyo, harmonization, the theory of harmonization, Meitreyā, the thought of Meitreyā, the scripture of Meitreyā, *the Ascent of Maitreya Sutra*, *the Essentials of the Ascent of Maitreya Sutra*, Meitreyā Bodhisattva, Meitreyā Buddha.

논문투고일 : '14. 4. 30. 심사완료일 : '14. 6. 2. 게재확정일 : '14. 6. 14.